

# 기획 : 〈커튼 콜〉 지역건축탐방

## 한국의 젊은 건축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추적

전진삼 | 본지 편찬위원, 〈와이드AR〉 발행인  
by Jahn, Jin-sam

1997년 10월호 「건축사」지는 인천을 필두로 지역건축탐방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후 울산·경주·포항(1997년 12월호), 마산·부여·공주(1998년 3월호), 부산(1998년 4월호), 충주·청주(1998년 5월호), 대구·김천·구미(1998년 6/7월호), 수원(1998년 8월호), 전주·익산·군산(1998년 9/10월호), 대전(1998년 11월호), 춘천·강릉(1999년 1/2월호), 광주·나주·목포(1999년 5월호), 진주·마산·창원(1999년 6월호), 서울(1999년 8/9월호), 제주(1999년 10/11월호), 신도시(1999년 12월호/2000년 2월호), 북한(2000년 3/4월호)을 탐방지로 정하여 각 지역 또는 주제를 대표하는 총 95인의 필자가 동원되었고, 또한 각 지역의 건축사, 도시계획가, 문학평론가, 저널리스트, 역사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등 1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의 도시와 건축 문제 좌담이 이어졌다.

종래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물이 아닌 지방을 출발의 기점으로 하여 중간 기착지에서 서울을 다루는 포맷도 신선했을 뿐더러 산개한 지역을 도시의 성격별로 그루핑하는 의도도 눈에 띄는 것이었다. 기획의 최종 단계에서 당시 불붙고 있던 신도시를 통으로 묶어 공간문제를 구조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북한의 도시와 건축을 한 묶음으로나마 돌아볼 수 있었던 점은 이 기획의 스펙트럼이 사뭇 방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금번 「건축사」지의 500호 기획을 준비하면서 우리 편찬위원회에서는 저간의 지역건축탐방의 대단원을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 건축의 영토를 무

한 확장해보자는 의도에 쉽게 합의를 보았다.

방법론적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저널리즘에 입각한 글쓰기를 해온 두 사람의 전문 필자를 위촉하여 주어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용,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공히 젊은 건축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시하면서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새로운 시각을 살필 수 있었고, 외국에서 활약하는 그들을 단지 한국인이라는 우호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가급적 독립사무소(또는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건축 결과를 생산해내고 있는 현장성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내고자 했다.

당장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국내외를 오가며 건축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는 긴장된 모습을 엿보이기도 하는데, 조직의 슬림화와 느슨한 관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의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의 건축디자인 생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기획이 거둔 수확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저들 중 일부가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를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강소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 끝으로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다. 이 기획의 완성을 위해 애를 쓴 두 필자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로 시선이 닿지 않은 또 다른 무리의 젊은 건축인들 다수가 국내외에 포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자 함이다. 그것은 이 기획물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대안재이며, 숨어 있는 우리 건축의 잠재적 가치임에 분명하다. 다소 분량이 많지만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